



#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TF와 함께 밥상 안전 높인다

고객홍보처

지난여름, 식탁 위에 한차례 파란이 일었다. 믿고 먹었던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특히 문제의 계란을 회수하는 과정, 그리고 살충제 계란 파동 후 이어진 계란 수급난은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불러왔다.

여기에 조류인플루엔자(AI) 문제까지 얽히지며 가금 및 가금산물 전반에 대한 먹거리 안전 확보 필요성이 커졌다. 체계적인 안전 확보 및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법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시 종합 대책을 세우며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소·돼지처럼 닭·오리·계란 등 가금과 가금산물에도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지난 1월 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하반기 전면 시행을 목표로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방법 마련이 조속히 필요함을 직시한 데에 따른 행보다.

하지만 현재 가금 및 가금산물 분야는 소·돼지와 달리 이력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안전 및 수급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처음부터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며 이력제가 시행될 수 있는 환경부터 차근히 조성해나가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시행을 위한 첫 발로 안정적인 제도 이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담 T/F(Task Force, 특별팀)가 편성됐다. 사업의 본격 시행에 앞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의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의 단계별 적정성을 사전점검하고 개선하고자 함이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전담 T/F는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 이력지원처를 주관부서로 하며 전담반, 실무반(제도개선반), 전문가반으로 구성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최규진 이력사업본부장이 총괄하고 승중원 이력지원처장이 T/F 반장을 맡아 운영한다.

---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미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단계별 이행 및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제반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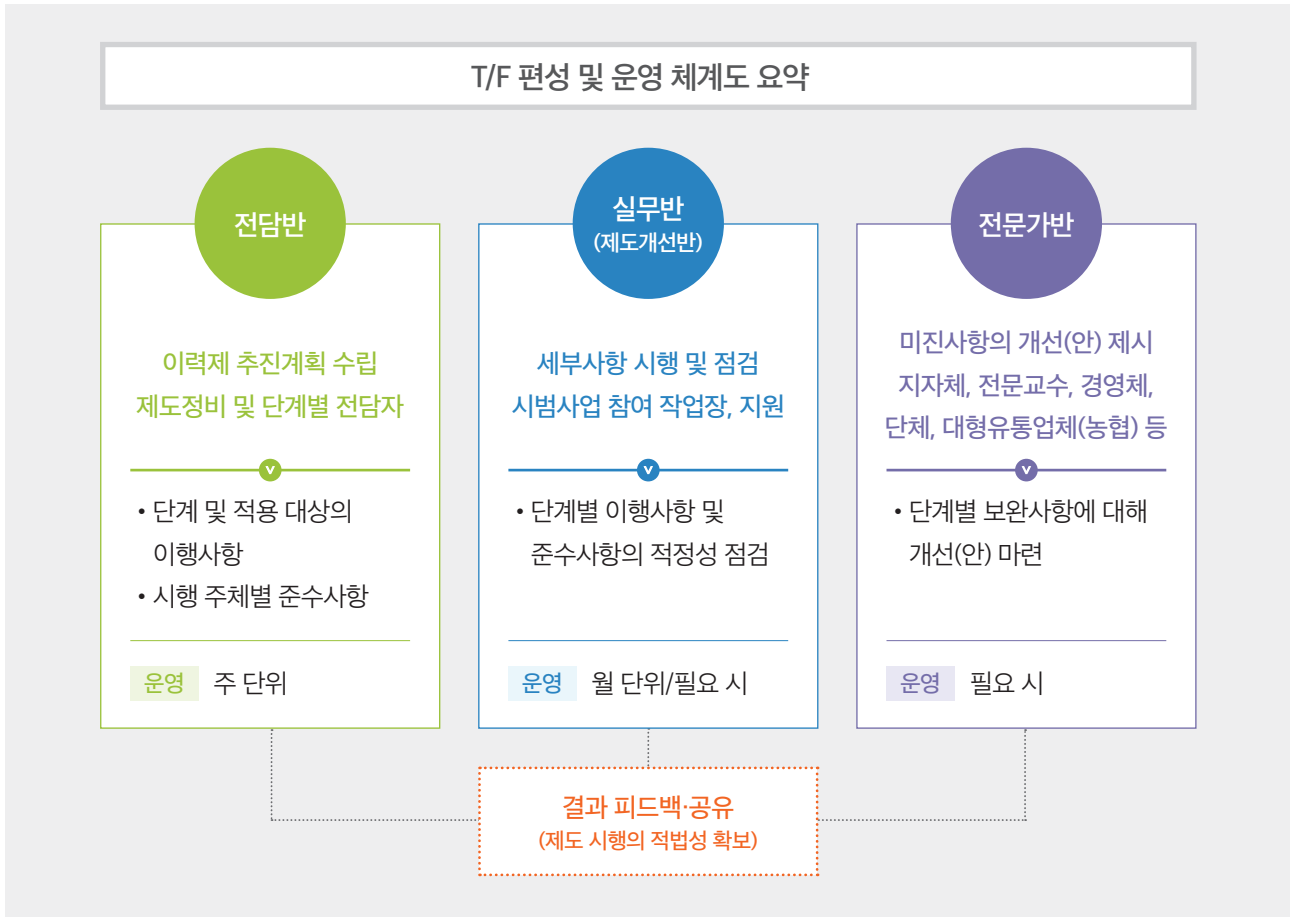
T/F는 2월부터 10월까지 약 9개월의 기간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운영기간은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및 단계별 확대 적용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될 수 있다.) 그동안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도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미진사항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 단계별 이행 및 준수사항을 사전점검 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제반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T/F의 공식적인 첫 활동은 이미 시작됐다. 2월 28일 개최된 T/F 첫 회의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사업의 실질적인 첫 태동이기도 하다.

T/F 첫 회의는 ‘가금농장 사육현황조사 및 농장식별번호 부여 검토(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T/F 구성원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이자 첫 회의였다.

하지만 T/F 구성원들은 새롭게 조직된 팀이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 정도로 뜨겁게 회의 주제에 몰입했다. 가금농장 사육현황조사를 위한 조사 요령(절차)의 적정성과 시설 확인 및 등록 절차(앱, 시스템) 간소화 방안, 농장식별번호 발급신청서와 사육현황(사육환경 등) 동시 조사 적절성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T/F 구성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신고기준이나 조사 대상 등에 있어서는 작은 차이가 차후 제도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때로는 억양을 높여 대립하면서까지 팽팽한 논의를 이었다.

이날 토론은 다양한 이슈가 있었지만, “단순하면서도 꼭 필요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주장과 “누락되는 곳 없이 다양한



농장을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력제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이 특히 눈에 띄었다. 회의를 진행하며 때론 부딪히고 때론 융화되는 목소리들. 모두 타당하기에 쉽게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이 주장들이 맞부딪힘을 반복하며 토론이 길어지기도 했다.

“시행착오 없이 서로 협조하며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의 안착을 이루자”는 T/F 총괄 최규진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사업본부장의 말이 T/F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 나아갈 방향,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할 목표점에 대한 강한 목표성과 의지를 담았다.

남은 약 8개월의 시간, 그리고 본 사업까지 그 후까지 이어질 대장정의 선봉에선 T/F. 그들이 첫 회의부터 보인 짙은 사명감과 열의에 우리 식탁에 대한 믿음이 한층 높아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긴다. 